

# 비도서자료 정리기준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도서관  
황영환 · 손정

## 목 차

- |                 |                     |
|-----------------|---------------------|
| I. 서론           | VI. 비도서자료의 목록기술원칙   |
| II. 비도서자료의 운영체제 | VII. 비도서자료의 통일표제    |
| III. 비도서자료의 등록  | VIII. 비도서자료 정리규정(안) |
| IV. 비도서자료의 매체기호 | IX. 결 론             |
| V. 비도서자료의 청구기호  | ※ 부 록               |

## I. 서 론

일반적으로 도서관자료는 책자형인 도서자료와 비책자형인 비도서자료로 구분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수록매체가 매우 다양해진 지금 각 도서관에서는 이 매체들을 자연스럽게 도서관 자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비도서자료는 주로 도서자료의 보조 자료로 많이 활용되었으나<sup>1)</sup>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도서자료가 비도서자료의 보조 자료가 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sup>2)</sup>

1970년대부터 우리 도서관에도 이러한 비도서자료들이 수집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른 등록번호와 매체기호 등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의 비도서자료들은 주로 인쇄물로서 정리 기준이나 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행본으로 등록되기도 하고 혹은 비도서자료로 등록이 된 경우도 있

1) 예 : 패도, 지도, 각종 문서, 혹은 Slide, 사진 등.

2) 예 : 한국민요대전CD의 해설집 등.

었으며, 또한 매체 기호와 별치기호의 구분도 분명치 않아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혼란이 생기곤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비도서자료의 수입량이 아주 적었던 관계로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비도서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자 도서관에서는 첨단 매체로 생산되는 자료들을 점차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수입된 시청각 자료라 할지라도 기존의 단행본 정리 방법이나 열람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이용 봉사가 될 수 없었던 도서관은 자료를 그대로 누적 시켜 오는 실정이었고 그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 커져만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94년 9월에 연건평 2,000평 규모의 연구도서관을 신축 개관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학습도서관에 새로운 시청각 자료실을 마련하게 되고 시청각 자료에 대한 열람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표-1〉 부산대학교 도서관 비도서자료 현황 1995. 8.15 현재

비도서자료 종류	비치실명	매체종류	종수	점수	
시청각자료	시청각실	CD (Audio)	4	50	
		CD (Computer)	4	4	
		OHP Film	1	32	
		Record Cassette Tape	301	372	
		Floppy Disk	2	14	
		Microfilm	11	703	
		Slide	10	2,432	
		Video	610	640	
	서지, 수서, 연간, 의대, 정리실	연구참고자료실	CD(Computer)	13	60
			CD(Computer)	1	1
		Microfiche	6	2,280	
소 계			963	6,588	
인쇄물 비도서자료	일반열람실	Map	62	64	
소 계			62	64	
합 계			1,025	6,652	

따라서 '95년 7월부터 약 5개월간 우리 도서관에 누적되어 오던 비도서자료의 현황 조사업무를 실시한 결과 아래<표-1>과 같이 총 1,025종 6,652점의 미정리된 비도서자료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별문제가 없었던 시청각 자료에 대한 개발과 자료구분, 자료등록, 자료정리 등의 명확한 기준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등록된 비도서자료 중에서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을 조사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한 다음 원부와 현품과 대조 작업을 면밀히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체별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특히 시청각자료의 정리기준에 대한 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 도서관의 정리업무 계획상 1·2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참고로 하여 비도서자료에 대한 자료구분, 등록방법, 정리업무 등의 제반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업무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 II. 비도서자료의 운영체제

우리 도서관은 비도서자료업무를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려고 한다. 여기서 이원화 체제란, ① 비도서자료가 일반적인 자료의 흐름과 같이 자료 개발은 수서과에서 하고 분류 및 편목은 정리과에서 수행하며 열람봉사는 일반열람실에서 담당하는 방법과, ② 자료의 개발은 여전히 수서과에서 담당하지만 **정리와 열람을 시청각 자료실에서 함께 수행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는 비도서자료가 일반자료실에 비치·소장되어 운용되는 것을 말하고, 후자의 경우는 시청각 자료실에 비치·소장되는 자료를 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도서관은 '94년 9월 연구도서관의 개관과 함께 학습도서관에 새로 마련된 시청각 자료실에서는 이미 소장하고 있던 비도서자료 중 시청각자료에 해당하는 일부 자료들을 이용자들에게 이용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서비스는 아니었다. 그것은 열람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수서와 정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개발정책, 자료등록, 정리방법 등 제반기준들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열람서비스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 2차자료 등의 서지도구도 없이 단지

수집된 자료만 가지고 열람 서비스가 먼저 출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시청각 자료실의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비도서자료와 시청각 자료의 구별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형편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이러한 운영은 딸림자료에 대한 문제, CD형태로 된 참고자료들의 비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뒤따라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리 도서관이 비도서자료의 운영체제를 이원화 체제로 선택한 원인과 자료구분원칙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 1. 이원화 체제를 선택한 원인

우리 도서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속히 누적 되어가는 시청각 자료에 대한 정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이원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즉, 시청각 자료실에 해당되는 자료는 등록 후 신속히 시청각 자료실로 인계되어 정리와 열람을 동시에 신속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원인은 비도서자료 중에서 시청각 자료로 개발될 경우에 그 자료들의 성격상 일반적인 정리 방법으로는 정리가 곤란하고 그것을 직접 시청하거나 청취한 후라야 정리 방법이 구체화될 수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새로 구입된 Video Cassette Tape 중에서 '모스크바 필하모니 교향악단 연주회'라는 제목을 가진 것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제목만 가지고 구체적인 분류편목을 할 수가 없다. 직접 시청을 한 후에 어떤 곡들이 연주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 자료를 자세히 시청 또는 감상하고 정리해야 하는 장비와 주변 환경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도서관 정리실에는 그러한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그러한 장비가 마련될 수 있는 형편이라도 비능률적이고 예산 낭비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시청각 자료실에서 직접 정리하고 이용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를 시청각 자료

실에 소장되게 하는가 혹은 어떤 자료를 일반 자료실에 소장되게 하는가 등 자료 구분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2. 비도서자료 구분의 일반원칙(안)

가. 비도서자료의 이원화 운영체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한 자료 구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도서관 자료구분기준'을 근거로 시청각 자료실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일반 자료실에서 운용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게 하는 원칙인 것이다.

이 구분 원칙은 이원화된 운영 방법에 따른 자료의 소장처를 분명히 규정해 줄뿐만 아니라, 그 규정에 따라 자료에 대한 정리 및 열람봉사의 주체를 정하게 하는 것으로 이원적인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하겠다. 이 원칙(안)이 채택되면 '부산대학교도서관 자료구분기준 제7조(비도서자료)'의 조항은 이 원칙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비도서자료의 소장·운영에 대한 구분세칙(안)

- (1) 단행본과 연속간행물로 구분되지 않는 모든 자료를 비도서자료로 규정할 수 있다.
- (2) 인쇄물 형태의 비도서자료는 기존의 정리과정을 따라 정리실에서 정리하고, 열람은 자료의 내용에 따라 해당 자료실<sup>3)</sup>에 비치하여 운용한다. 단, 악보는 연구도서관 단행본실에 비치하여 별도 관리한다.
- (3) 시청각 자료 중에서 기존 자료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단지 매체의 형태만을 바꾸어서 제작된 자료는 기존 자료의 성격에 따라 해당 자료실에서 소장·운용한다.(예: 각종 서지적인 데이터CD-ROM, 사전류의 CD-ROM 등)
- (4) 시청각자료 중에서 다른 어떤 자료와도 관련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작된 자료는 등록 후 시청각자료실에서 직접 정리·운용케 한다.
- (5) 마이크로 형태자료는 내용에 따라 해당 자료실에 비치·열람케 한다.
- (6) 일반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의 보조자료로서 제작된 비도서 자료는 등록하지

3) 예 : 서지자료실, 참고열람실, 연속간행물실, 단행본실 등

않고 딸림 자료로 처리하여 주된 자료에 따라 비치·검색되게 한다. 반대로 주된 자료가 비도서자료이고 그 보조 자료가 도서자료<sup>4)</sup>일 경우에도 등록하지 않고 주된 자료에 따라서 비치·검색되게 해야 한다.

### Ⅲ. 비도서자료의 등록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情報의 수록 매체가 다양하게 생산되면서 도서관에 수입되는 비도서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에 새로운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도서관의 등록방법은 책자형 자료의 등록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새로 개발된 방법은 거의 없다. 따라서 자료의 등록이 정리업무와 열람업무의 기초를 이룬다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좀 더 명확하고 다양한 등록업무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 1. 등록업무의 중요성

우리 도서관은 비도서자료에 대한 등록기준도 없이 '70년대부터 별도의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등록 담당자의 판단만으로 20여년 동안 비도서자료를 등록하여 온 결과 혼돈 서럽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다행히 그 동안 비도서자료의 수집이 활발하지 못했던 관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속히 증가하는 다양한 매체의 비도서자료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등록하기에는 역부족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악보<sup>5)</sup>는 구입처에 따라서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로 등록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등록되었든지 악보에 대한 정리기준과 비치방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면 별문제가 없었겠으나, 현재로는 등록 번호의 부여에 따라 4중으로 등록·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6)</sup> 또한 일본에서 출판된 악보를 국내에서 영인

4) 예 : 한국민요대전 CD의 해설집 등.

5) 악보에 관한 부산대학교도서관 자료구분기준 제7조(비도서자료)에 "인쇄물형태의 비도서 자료는 내용에 따라 해당 자료실에 비치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단, 악보는 연구도서관 단행본실에 비치하고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으로 발행하고 이것을 우리 도서관이 다시 구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발행처의 국적이 등록에 있어서 최우선의 구분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 등록에 따른 정리과정을 거치게 되어 이러한 이중 구입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예로 설명한 중복 등록으로 인한 정리체계의 혼란은 결국 우리 도서관이 언어권별 정리체계를 선택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권 구분 정리체계뿐만 아니라 II장에서 언급한 소장-운용의 이원화 체제에 맞도록 자료의 등록부터 이원화 체제에 맞추어 구분 등록이 되어야 하고, 이 등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료의 분류, 편목, 열람방법 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등록 업무의 중요성은 더 한층 강조되고 또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업무라 하겠다.

앞으로 정리 체제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원화 체제의 자료 운영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자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등록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 비도서자료의 이원화 체제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여 해당 자료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나. 현행 비도서자료의 등록업무를 면밀히 분석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비도서자료에 대한 등록 번호의 일관성 유지
- (2) 딸림 자료에 대한 처리 기준
- (3) 등록 장비 다양화의 필요성
- (4) 매체별 등록 기준<sup>7)</sup>

다.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는 비도서자료에 대한 전문성과 첨단 매체자에 대한 지식 함양도 요구된다.

6) 현재 비도서자료로 등록된 악보는 미정리 상태로 수서실과 정리실에 계류중에 있다.

7) 현재 우리 도서관에 등록 기준이 필요한 시청각 매체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번호	매체명	번호	매체명
1	CD (Audio-visual)	7	OHP Film
2	Disc	8	Record Cassette Tape
3	Floppy Disk	9	Slide Film
4	Map	10	Video Cassette Tape
5	Microfiche	11	Score (단일악기용)
6	Microfilm	12	Score (관현악용)

## 2. 비도서자료등록의 개선 방안

앞에서 언급한 현행 등록업무 중에서 비도서자료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새로운 등록업무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딸림 자료의 처리 문제

어떤 자료를 딸림 자료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등록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고, 주(主)자료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면 종(從)적인 자료가 시청각 자료일지라도 原資料에 따라 비치되어야 한다. 그 반대로 주된 자료가 시청각 자료이고 딸림 자료가 인쇄물(Note형, 책자형, 팜플렛형 등)인 경우에도 주된 자료에 따라 비치되어야 자료 운용상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딸림자료의 등록 방법과 매체별 등록 기준

#### (1) 딸림자료의 등록 방법

현재 우리 도서관의 딸림 자료 처리 방법은 비도서자료의 첫번째 등록번호에 대쉬를 하고 일련 번호가 주어진 상태이다. 이 방법은 지양하고 새로운 등록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딸림 자료가 책자형일 경우에는 그 책자형자료 자체가 정보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로 단행본 등록하여 시청각 자료실의 별치기호(AV)로 도서를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이 방법이 선택된다면 등록과 정리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고 또한 단행본 디렉토리에 목록이 되어짐과 동시에 비도서자료 목록에도 딸림 자료에 대한 표시가 입력되어서 이용자가 자료를 검색할 때 양쪽 모두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2) 매체별 등록 기준

① 각 매체별 특성으로 인하여 등록 방법은 분리등록<sup>8)</sup>과 묶음등록<sup>9)</sup>으로 나눌 필

8) 분리 등록은 한 세트의 자료가 그 자료수 만큼의 등록 번호를 가지게 되는 등록을 말한다.

9) 묶음등록은 한 세트의 자료를 일일이 하나의 등록번호로 등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자료들로서 세트를 하나의 등록번호로 등록하고 그 내용을 목록에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예: Microfiche 요람자료)



요가 있다. 그 기준은 매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독립되도록 분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체가 하나로서 가치를 가지는 자료는 묶음등록하는 것이 정리, 이용 등 자료관리 면에서 훨씬 용이할 것이다. 현재의 등록 방법은 적합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고 등록 담당자 임의로 처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분리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묶음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예: ???)

- ② 묶음 등록일 경우에 현재 등록번호에 대쉬(-)로 연결하여 일련 번호를 주는 방법은 피하고 독립된 개개의 자료마다 동일항 등록 번호가 주어지게 하고 그 상세 내용이 원본상에 기록 되어야하며 목록상에서도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③ 다른 등록 번호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비도서자료 등록 번호 앞에 식별 문자가 필요하다. 그 문자는 Nonbook의 첫 문자인 'N'으로 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 ④ 자체 녹화 및 녹음 Cassette Tape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행본의 기증자료와 유사하게 취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판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역사적 가치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와 원본을 구할 수 없고 일반 방송매체를 통하여 이미 방송이 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의 자료들은 담당자가 시청각 자료실에서 가등록(임시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이미 등록된 기존의 비도서자료들과 함께 검색되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등록 자료를 정리할 때 등록번호와 식별문자는 시청각 자료실의 별칭기호인 'AV'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 등록장비 다양화의 필요성

비도서자료는 매체와 그 크기가 다양한 만큼 등록 장비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각 매체에 적합한 크기의 장서인과 등록인(바코드) 스티커를 동일한 위치에 부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청각 자료에서는 장서인과 등록인 스티커의 부착 위치 선정은 자료의 물리적 형태와 성질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을 선택해야 하기때문에 현재 동일한 크기의 장서인 스티커를 부착하기에는 부착 위치가 매체의 형태상 협소한 것들이 많아 임의적으로 빈 공간에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 자동화된 업무가 되면 바코드 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서관 비도서자료에는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료의 재등록 작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바코드 부착 등 정리업무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 3. 비도서자료의 별칭기호

우리 도서관 비도서자료의 별칭기호는 현재 학습도서관(U)과 연구도서관(R)을 나타내는 'U'(Undergraduate Library)와 'R'(Research Library)의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서관의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주제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학습도서관을 의미하는 'U'로 부여하게 된다면 연구 결과에 따라 자료를 이관할 경우에 이 별칭기호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각 자료실이 어느 곳에 설치하든지 상관없이 시청각 자료실을 의미하는 'AV'(Audiovisual Materials)라는 별칭기호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외의 비도서자료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별칭기호(RM, RR, RG, RB, UM...등)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 도서관이 지금까지 단행본실, 연속간행물실, 참고자료실, 서지자료실 등으로 기능상 자료를 분리하여 왔으나 주제 도서관의 개념이 도입될 경우 다수의 주제를 가진 동일 매체의 자료들을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현재 방식에서, 동일 주제를 가진 다수의 매체들을 한 곳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같은 별칭기호를 가진 자료들이 여러 주제 열람실로 흩어지게 되고 여기에 따른 대출과 반납 업무에 있어서 현재의 별칭기호 표시방법이 다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 주제 도서관에 대한 기본계획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 도서관 전체적인 발전 단계를 수립시키고 난 뒤, 별칭기호를 고정해야 다음에 오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 주어지고 있는 별칭기호 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또 거기에다가 현재 진행중인 자료재구분 작업으로 인하여 별칭기호의 전환이 필요한 자료가 상당할 것이다. 연구도

서관 개관 이후 15개월 동안 정리된 자료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도 빠른 시일 내에 모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도서관이 지향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염두에 두고 그 계획에 맞추어 미리 준비해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IV. 매체기호

### 1. 용어의 정의

매체기호라 함은 육안으로 읽을 수 없는 인쇄되지 않은 형태의 자료를 표시하는 어구로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치<sup>10)</sup> 등의 자료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Sound Cartridge(AK), Video Cartridge(VK), Map(Ma) 등에 대한 약어 표시로서 'AK'나 'VK' 또는 'Ma'와 같은 영문 약자로 비도서 자료를 식별하고자 하는 기호를 의미한다.

### 2. 매체 기호와 별치기호 구분의 필요성

지금까지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비치 열람실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매체 기호와 별치기호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인쇄물 비도서자료가 조금씩 수집되면서도 매체 기호에 대한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시청각 자료가 많이 수집되면서 이 두 기호의 구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하나의 열람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소장하게 됨에 따라 열람과 운용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열람실 내에 첨단 매체자료의 재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료의 성격을 표시하는 별치기호와 구분되는 '매체기호'를 새롭게 부가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10)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6. p.75. 참조.

### 3. 매체기호의 기재 위치

기존의 별치 기호를 존속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별치 기호 다음에 ( )로 묶어 매체 기호를 기입한다. (예: RB(CDC) ←서지자료실의 CD-ROM 데이터자료)

### 4. 각 매체별 기호

앞으로 다양한 매체의 비도서자료가 계속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산되는 모든 자료들을 우리 도서관에 입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문헌에 나타난 모든 자료와 예상되는 자료에 대하여 전부 매체기호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도서관에 이미 입수된 자료와 입수가 예상되는 비도서자료에 한하여 규정해 보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도서관에 입수된 비도서자료의 매체별 기호의 종류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2> 우리 도서관 시청각매체의 종류

번호	매 체 명	번호	매 체 명
1	CD (Audio-visual)	7	OHP Film
2	Disc	8	Record Cassette Tape
3	Floppy Disk	9	Slide Film
4	Map	10	Video Cassette Tape
5	Microfiche	11	Score (단일악기용)
6	Microfilm	12	Score (관현악용)

그 외 새로운 자료가 입수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매체 자료에 해당하는 영문자의 머리 글자를 채택하되 두자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반드시 세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추가할 수도 있다.

- 나. 머리 글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대부분 두번째 글자나 발음상 의의가 있는 글자를 선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임의의 글자를 편리하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다. 선택이 된 머리 문자는 조기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sup>11)</sup>
- 라. 채택된 첫번째 문자는 공통자료를 표시하고, 두번째 문자는 매체자료의 성격을 의미한다.
- 마. 공통 자료 표시는 KORMARC과 USMARC 기술 규칙을 준용한다.

### 5. 매체기호 표시(안)<sup>12)</sup>

부산대학교도서관의 비도서자료 정리를 위한 매체 기호의 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가. 공통자료 표시 및 매체 기호

공통자료표시	매체명	매체기호
Audio Recording	.....	AA
(or Sound Recording)	Sound Cassette	AC
	Sound Disc	AD
	(78회전반, 33회전반, 45회전반, CD)	
Computer File	.....	CA
(or Machine-readable data file)	Computer Laser Optical Disks	CDC
	(Compact Disc형태의 자료)	

11) 자주 사용되는 공통의 자료형태에는 공통약기호를 배정한다.

자료형태	Cassette	Disc	Cartridge	Reel
약기호	C	D	K	R

- 12) (1) 충남대학교도서관, "비도서자료DB구축에 따른 서지포맷에 관한 연구," 대전 : 충남대학교도서관, 1995.
- (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에 관한 연구 : 비도서자료용 포맷,"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1.
- (3) \_\_\_\_\_,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에 관한 연구 : 비도서자료용 기술 규칙,"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1.
- (4) 金南碩, 「非圖書資料」,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84.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작성하였다.

	Computer Disk .....	CDF
	(Floppy Diskette형태의 자료)	
	Program File .....	CE
	Data File .....	CF
Map .....		Ma
(or Cartographic	Atlas .....	MA
Material)	Map .....	Ma
	Globe .....	MG
	Topographic Drawing(지형도) .....	MT
	Wall Map(벽걸이지도) .....	MW
Microform .....		NA
	Microfiche .....	NF
	Microfilm (Microfilm reel) .....	NR
	Ultrafiche .....	NU
Music .....		Mu
(or Score)	Single Instrumental Score .....	Mu
	Orchestral Score .....	MO
Slide .....		SA
	Audioslide .....	SO
	Slide .....	SL
Video Recording .....		VA
	Video Cassette .....	VC
	Video Disc (CDG포함) .....	VD
	Video Reel .....	VR
	Laser Disc .....	VS

나. 위의 매체기호 표시(안)을 우리 도서관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CD : (가) Computer File .....

CDC

(나) Audio Recording .....	AD
(다) Video Recording .....	VD
(2) Disc(음악음반) .....	AD
(3) Floppy Disk .....	CDF
(4) Map : (가) Map(일반지도) .....	Ma <sup>13)</sup>
(나) Atlas(지도책) .....	MA
(다) Topographic Drawing(지형도) .....	MT
(라) Wall Map (벽걸이지도) .....	MW
(5) Microfiche .....	NF
(6) Microfilm .....	NR
(7) Single Instrumental Score (책자형 악보) .....	Mu <sup>14)</sup>
(8) Orchestral Score (주로 낱장형 악보) .....	MO
(9) OHP Film (문헌적 조사가 되지 못하였음) .....	OH
(10) Record Cassette Tape .....	AC
(11) Slide Film .....	SL
(12) Video Cassette Tape .....	VC

## V. 비도서자료의 청구기호

### 1. 비도서자료의 분류

비도서자료의 분류체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존의 KDC나 DDC등의 분류 체계를 따르는 방법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방법은 매체별 수입순에 의하여 고정식으로 배가되고 자료검색은 목록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3) 우리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정리되어 있는 비도서자료는 지도자료이다. 따라서 기존의 청구기호를 가능한 그대로 존속 시킨다는 의도에서 영어 소문자 a를 선택하였다.

14) 우리 도서관에서 기존체제로 정리되어 있는 악보자료의 매체기호는 Mu이다.

특히 음반이나 비디오 테이프처럼 하나의 매체자료 안에 여러 곡이나 화면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의 분류방법으로는 상당한 무리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자료는 해당 주제의 수입순에 따라 배가하고 자료의 검색은 목록이나 검색터미널을 통해서 검색되게 하는 후자의 방법이 하나의 매체에 다수의 자료가 혼합되어 있는 자료를 분류하는데 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3〉 기존 분류체계와 수입순 배가방식의 장·단점

	기존 분류 체계	수입순 배가방식
장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존의 체제를 따르는 관계로 분류 체계와 자료검색에 통일성이 있다.</li> <li>2. 동일분류 내에서 한 저자의 저작이 한 곳에 집합된다.</li> <li>3. 이용자의 직접적인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호의 결정이 간단하고 혼합 수록된 자료 분류에 편리하다.</li> <li>2. 자료의 배열이 용이하다.</li> <li>3. 체계화된 표에 되지 않는다.</li> <li>4. 자료의 개별화가 용이하다.</li> <li>5. 자료의 점점이 용이하다.</li> <li>6. 숫자로 기호가 구성되므로 이용자에게도 편리하다.</li> </ol>
단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존 분류 체계로써 모든 비도서 자료의 내용을 완전하게 분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특히, 혼합 수록된 자료에 대한 분류는 더욱 곤란하다.</li> <li>2. 자료의 분류, 개별화, 배열, 점검 등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불편하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재 2,3종의 분류체계가 더욱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된다.</li> <li>2. 동일분류 내에서 한저자의 저작이 한 곳에 집합되지 않는다.</li> <li>3. 개가식으로 운영해도 이용자의 자료 검색은 불편한 편이다.</li> </ol>

또한 비도서자료 분류는 기존의 분류체계와 수입순 배가방법 중에서 어느 한가지 방법만을 주장하기에는 〈표-3〉과 같이 몇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자료의 양이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 현재로는 개가식의 장점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수입순 기호법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한 우리 도서관이 도입하려는 주제



도서관의 개념은 매체별 구분 없이 모든 자료를 주제로 구분하여 서가에 배열하는 방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전면적인 수정 작업을 다시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하여 정리하도록 하고 청구기호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려고 한다.

매체기호 다음에 해당 주제의 분류기호는 KDC분류체계(3판)를 따르되, 대부분의 자료들은 類나 綱까지만 전개하고 시청각 자료군의 특성으로 인하여 예술 분야는 목까지 전개하도록 하며, 도서기호는 매체별 수입순 기호를 채택하도록 한다.

◆ 예 : 9번째 입수된 "영화비디오테이프"의 청구기호는,  
AV(VC)로 구성한다.

688

9

그리고 KDC분류표를 적용한 본교관련 자료는 377로 분류되어 청구기호는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예 : 2번째 입수된 본교 관련 비디오 자료는,  
AV(VC)로 구성한다.

377

2

## 2. 도서기호 구성

동일 주제내에서 매체별 수입순 기호로 한다.

### 가. 판차표시

판차 표시는 한 저자의 동일한 서명을 한 곳에 모으고 이것을 판의 회수에 따라 구별되게 하는 것이지만, 수입순 기호를 채택하면 저작 기호와 같이 생략하도록 한다.

### 나. 권호, 연도, 복본 표시

이 표시는 현재 단행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준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행본의 권호, 연도, 복본 표시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한다.

## VI. 비도서자료의 목록기술원칙

### 1. 목록기술 원칙<sup>15)</sup>

비도서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술규칙, MARC format, 운용프로그램 등이 세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 운용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라서 기술규칙과 포맷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① 현재와 같이 운용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와 ② USMARC에 맞추어 운용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③ KORMARC(안)에 맞추어진 운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기술규칙과 포맷을 살펴보고 선택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

가. 비도서자료D/B 운용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현재 비도서자료의 운용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KORMARC(안)이 표준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짐에 따라 당장 비도서자료의 운용프로그램 도입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술규칙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욱 까다로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은 비도서자료를 미정리 상태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목록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비도서자료 정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운용프로그램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단행본 정리 프로그램으로 비도서자료를 정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목록규칙은,

- ① KCR3을 사용하고,
- ② KORMARC(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 비도서자료용 기술규칙(안)을 사용하되,
- ③ 포맷은 단행본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록 방법은 비도서자료에 대한 MARC의 표준화와 운용프로그램의 완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재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15) (1)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에 관한 연구 : 비도서자료용 포맷,"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1.

(2) \_\_\_\_\_,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에 관한 연구 : 비도서자료용 기술규칙,"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1.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작성하였다.

#### 나. USMARC 운용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비도서자료 정리에 USMARC을 도입하게 되면 이 MARC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비도서자료 운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도서자료 운용프로그램도 쉽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SMARC에 맞추어 운용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목록규칙은.

- ① AACR2을 사용하고,
- ② USMARC 비도서자료 기술규칙을 사용하며,
- ③ USMARC 비도서자료 포맷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방법에도 몇 가지 문제는 있다. 단행본과 마찬가지로 국내 MARC의 통합을 이루지 못할뿐 아니라 국내자료 표현에 기술상의 문제가 있으며 또 앞으로 KORMARC의 표준화가 완성된 후에 KORMARC으로 통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MARC을 다시 전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 다. KORMARC(안)에 맞추어 운용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이 안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비도서자료의 운용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KORMARC의 개발이 완성되지 않는데 있기 때문이고, 또 지금의 KORMARC(안)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하여도 결국 그것은 案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미완성의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의 제안된 안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또 그 案에 따라 입력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외에 단행본처럼 KORMARC(안)과 USMARC를 혼합하여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하나의 디렉토리 내에서 두 가지의 MARC를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나 사서에게 혼란만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배제되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세 가지 경우 가운데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USMARC로 입력하는 방법이라 하겠으나 이는 운용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만약 이 전제가 성립되지 못한다면 선택의 여지없이 첫번의 경우처럼 단행본 포맷으로 입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 VII. 비도서자료의 통일표제

통일표제(Uniform Title)는 여러 판에서 상이한 표제로 출판된 도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표제를 목록 기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sup>16)</sup>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는 통일서명(Standard Title)의 형태로 법전, 경전, 무저자고전에만 적용하였을 뿐 아직 음반이나 악보 같은 비도서자료에 적용한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통일표제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정리되어 있는 악보들은 단행본의 경우와 같이 언어권에 따라 각자 다른 목록규칙이나 언어를 사용하였고, 지금도 쉽게 언어권으로 분리하여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충남대의 경우 예제 담) 따라서 통일표제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하나의 언어권이거나 하나의 표기법으로 표현되지 않은 같은 음반이나 악보들은 발행처의 국적에 따라 제각기 그 표제를 다르게 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악보나 음악 관련 자료들은 일반 자료들과는 달리 한번의 과정으로 결과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표현 방법인 악보라는 매개체로 인하여 세계 어떤 곳에서라도 재생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자료에 대한 표현 방법이 경우에 따라 각자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작품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단행본처럼 각국의 언어권으로 분리하여 목록을 할 수 없고, 하나로 통일된 표제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는 연주장소, 연주자, 자료발행처와 상관없이 '차이코프스키(>100 10 \$a Tchaikovsky, Peter Liyich<sup>17)</sup> \$d 1840 -1893)의 백조의 호수(>240 00 \$a 백조의 호수 \$n 작품20)'로 표현체계가 통일되어야 이용자들이 한번에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들 미정리 음악작품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할 때 필요한 통일표제(안)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음악작품에 적용할 통일표제의 언어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문표기를 채택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세부 규정(안)을 제안한다.

16)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6. p.223. 참조.

17) 국공립대학교 목록분과회의의 결과에 따라 외국인 저자명은 번자하지 않고 로마자화하여 기입한다. 따라서 전거레코드가 완성되기까지는 7XXtag에 국문번역명을 부출하도록 한다.

## 1. 국문통일표제(안)

- 가. 통일서명은 국문으로 기입하고 레이블의 표제는 원자료의 레이블 그대로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外來語표기 기준 : 관용상의 표현을 따르되(주제전문사전) 부득이 새로 번자할 경우에는 1986년 문교부制定 「로마자字의 한글化 表記法」에 준한다.

## 2. 국문 통일표제 기술형식의 기본원칙(안)

### 가. 외국인 작곡의 양악일 경우

- (1) 어떤 나라에서 제작된 것이라도 외국인에 의하여 작곡된 작품의 경우에는 번역명을 통일표제에 기입하고 레이블에 있는 표제는 서명에 입력한다.
- (2) 통일표제와 레이블의 표제가 동일한 경우에는 통일표제는 생략하고 레이블의 표제만 입력한다.

### 나. 내국인 작곡의 양악일 경우

- (1) 레이블 표제와 통일표제가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레이블의 표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악곡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레이블의 표제가 통일표제 형식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자료는 통일표제를 생략할 수 없다.

### 다. 國樂의 경우

1940년대를 분기점으로 창작 활동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었던 古代~朝鮮時代까지의 전래 국악과 1940년 이후의 新國樂으로 나눈다<sup>18)</sup>.

#### (1) 전래국악

(가) 雅樂曲 : 俗名을 통일표제로 취하고 雅名과 別名 참조한다.<sup>19)</sup>

18) 1947년부터 국악의 경연 대회가 개최되고 서울 중앙방송국과 결속하여 국악의 본격적인 방송 및 국악자들의 신작발표운동이 싹이 텃던 연대이기 때문이다. (車惠仁, "音樂錄音資料의 國文統一標題."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p.38)

19) 雅名일 경우 그 곡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연회나 의식이 있을 때마다 동일곡조에 그때

(나) 민속악 : 관용적인 곡명을 통일표제로 선정하고 별명을 참조한다.

(2) 新國樂 : 양악의 기술방법을 따른다.

### 3. 통일표제의 선정기준(안)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작품목록이라 든가, 書目, 그 작곡자의 전집, 전기 및 음악 작품 등에 의하여 선택한다.

가. 양악 : 각국에 따라 음악의 호칭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일을 위하여 문헌 가운데나 관용상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표제는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제를 통일표제로 한다. 표제가 두가지 이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에는 (1) 문헌, (2) 일반적인 관용도 (3) 원표제와 번역어의 비교의 순에 따라 결정한다.

(예: 이름답고 푸른 도나우) ← ①이름답고 푸른 다뉴브강 ②푸른 도나우강 : 아래의 예시된 참고문헌 (6)번의 音樂大事典을 참고 하였음)

#### 나. 국악

- (1) 전래국악의 雅樂曲名을 위한 俗名통일표제는 국립국악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악곡명을 祭禮樂, 冥禮樂, 軍樂, 歌樂으로 대별하여 통일표제로 채택한 俗名을 기입하고 그 아래 雅名, 內容 등을 수록하였다.<sup>20)</sup>
- (2) 주로 신국악의 경우에, 악곡의 형식을 나타내는 말이 표제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孫正彪교수의 "國樂레코드의 整理에 관한 研究"(도협월보, 제9권 9호 (1968. 11), pp. 23-24.)를 참조하여 통일표제를 선택한다.

※ 음악의 경우 통일표제선정에 참고할 수 있는 주제전문사전 중 우리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도, 분량, 출판사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결과(1),(2),(6),(8)번의 자료를 우선으로 참조하도록 한다.

---

그때 붙여 놓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俗名 하나에 2개 정도의 雅名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신국악 시대의 작곡자에 의한 이들의 변주곡 등에는 오히려 俗名을 사용하고 있으며,...(車惠仁, 앞의 글, p.38-39)

20) 張師助, 「國樂論攷」, (서울대학교출판부, 1974, pp.522-526)

(1) 670.1503

세16ㅅB 세광 명곡해설 대사전 : 관현악곡, 피아노·오르간 / [세광출판사 편집국 편]. — 서울 : 세광출판사, 1993.  
1087 p. : 삽도 ; 27 cm  
索引 및 主要曲一覽 : p. 1037-1087  
ISBN 8903224035 93670 : ₩75,000

(2) 670.1508

세14ㅅ 세계명곡해설대전집. 1-7. — 서울 : 進賢書館, 1980.  
1-7 7책 : 23 cm  
1, 交響曲. 協奏曲. 室內樂曲 篇. - 2, 管絃樂曲. 器樂曲篇. - 3, 歌劇. 聲樂曲 篇. - 4, 演奏曲 篇(上). - 5, 演奏曲 篇(下). - 6, 作曲家 篇. - 7, 現代世界音樂大事典 / 진현서관편집부편

(3) 670.3

명15ㅎ (클래식)名曲解說테마事典 / 이용일 ; 황봉주 [공편]. —서울 : 現代音樂 出版社, 1986.  
894 p. : 악보, 도판 ; 26 cm  
찾아보기 : p. 891-894

(4) 670.3

세14ㄱ 세계名曲解說大事典. 1-16. — 서울 : 國民音樂研究會, 1972.  
1-16 16 책 : 삽도 ; 22 cm  
1.2, 交響曲(上-下). - 3.4, 聲樂曲(上-下). -5.6.7, 管絃樂(上-中-下). - 8.9, 歌劇(上-下). - 10.11, 協奏曲(上-下). - 12.13, 室內裝飾(上-下). - 14.15.16, 獨奏曲(上-中-下)

(5) 670.3

음61ㄱ 音樂大事典 / 금수현...[등편]. — 서울 : 미도문화사, 1977.  
1592 p. : 삽도 ; 27 cm

- (6) 670.3  
음61ㄱ 音樂大事典 / 音樂大事典編纂委員會 編. — 서울 : 信進出版社, 1973.  
1592 p. : 삽도 : 26 cm
- (7) 670.3  
음61ㄱA 音樂大事典 / 세광출판사사전편찬위원회 편. — 서울 : 세광출판사, 1982.  
1942[1] p. : 사진 : 27 cm
- (8) 670.3  
음61ㄱB (標準)音樂事典 /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편. —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5.  
1025 p. : 삽도 : 23 cm
- (9) 670.3  
음61ㄱE (最新)音樂事典 / 柳德熙 編著. — 서울 : 松山出版社, 1987.  
386 p. : 삽도 : 19 cm
- (10) 670.3  
클231ㄱ 클라식名曲大事典 / 李成三 著. —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8.  
835 p. : 22 cm
- (11) 670.3  
파847ㄱ 파풀러음악용어대사전 = Dictionary of popular musical terms / [세광음악출판사편집국 편]. —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7.  
673 p. : 삽도 : 23 cm
- (12) 670.34  
음61ㄱ 音樂用語事典 = Dictionary of music terms / 세광음악출판사사전편찬위원회 편. — 서울 : 世光音樂出版社, 1986.  
1052 p. : 19 cm



(13) 670.8

세14ㄷ 世界名曲解説全集. 1-6. — 서울 : 東梧出版社, 1976.

1-6 6 책 : 삽도 ; 23 cm

1, 交響曲, 協奏曲. - 2, 管絃樂曲, 器樂曲. - 3, 歌劇, 聲樂曲. 4, 演奏家 (上). - 5, 演奏家 (下). - 6, 作曲家

(14) 780.3

G86m5 Grove's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5th ed.,  
1-3,5-10 edited by

Eric Blom. — London Macmilla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54.

v. < 1-3, 5-10 > illus., ports., music. 24 cm.

First ed. published in 1879-89 under title: A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15) 780.3

G88m5a Grove's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 ed. by Eric Blom.— 1-10 Blom. — London : Macmillan Pub., 1973.

10 v. : ill. : 26 cm.

Library has: v. 1 - v. 10 v. 1. A-B — v. 2. C-E — v. 3.

F-G — v. 4. H-K — v. 5. L-M — v. 6. N-Q — v. 7.

R-SO — v. 8. ST-VIO — v. 9. VIR-Z —v.sup.

Supplementary.

(16) 780.3

G88m5b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  
1-20 edited by

Stanley Sadie. — London : Macmillan Publishers ;

Washington, D.C.: Grove's Dictionaries of Music, 1980.

20 v. : ill. : 26 cm.

Library has: v. 1 - v. 20.  
Includes bibliographies.  
LCCN 79-26207 /MN/r912  
ISBN 0333231112

## VIII. 비도서자료 정리규정(안)

### 1. 분류 : KDC 3판을 사용한다.

- 가. 일반 주제자료는 類·綱까지 주제를 전개하고,
- 나. 예술분야의 자료들은 목까지 전개한다.

### 2. 목록규칙

- 가. AACR2를 사용한다.
- 나. USMARC의 기술규칙과 USMARC format을 사용한다.

### 3. 청구기호의 구성

- 가. 별치기호 : 시청각자료실의 별치기호는 'AV'로 한다.
- 나. 매체기호 : 본문 제4장의 「매체기호 표시(안)」를 참조한다.(p.38-40)
- 다. 분류기호 : KDC 3판을 사용한다.
- 라. 도서기호 : ① 동일 매체 ② 동일 분류내에서 자료의 수입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한다.

예) : 9번째 입수된 영화비디오테이프

청구기호 : AV(VC) ..... 매체기호 표시  
688 ..... KDC분류기호  
9 ..... 동일분류 내에서 수입순

① 권차기호 : 아라비아숫자로 통일하여 부여한다.

예) 대한민국임시정부, 1편~3편 [Video Cassette] / KBS영상사업단

AV(VC) AV(VC) AV(VC)

910 910 910

14 14 14 한국사에서 14번째 입수된 비

1 2 3 디오자료 임.

② 연도표시 : 연속물로서 권차표시가 연도표시로만 되어 있는 자료는 그 연도를 아라비아숫자로 통일하여 부여한다.

예) '86 KBS 국악대상 [Video Cassette] / 한국방송사업단

'87 KBS 국악대상 [Video Cassette] / 한국방송사업단

AV(VC) AV(VC)

679 679

21 21 국악분야에 21번째 입수된 비디오자료.

1986 1987

④ 복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차기호는 모두 아라비아숫자로 통일하여 큰 단위의 것과 작은 단위의 것 사이를 괄호( )로 묶어서 부여한다.

예) Videofashion Monthly,13/11 : The Bottom Line [Video Cassette]

" ,13/12 : The Color Craze [Video Cassette]

" ,14/1 : Nostalgic Looks [Video Cassette]

" ,14/2 : The New Feminity [Video Cassette]

AV(VC) AV(VC) AV(VC) AV(VC)

590 590 590 590

7 7 7 7 패션분야에서

13(11) 13(12) 14(1) 14(2) 7번째 입수된

비디오자료

② 복본기호 : 동일한 자료의 두번째 입수분부터 적용하되 적용방법은 권차 기호 다음에 등호='를 붙인 후 아라비아숫자 '2'부터 부여하도록 한다.

예) 건강관리대강좌 [Sound Cassette Tape] 1~4 / 음성출판사

AV(AC) AV(AC)

510 510

1 1 의학분야에서 첫번째 입수된 레코드카세트자료

1 1=2

## IX. 결 론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의 비도서자료에 관한 여러가지 현황을 살펴보고 비도서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제반기준들을 연구·검토하여 기술해 보았다. 비도서자료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사회의 현상을 도서관에 새롭게 받아들인 것으로 기존의 책자형에만 국한하였던 자료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매체로 바꾸게 하였다. 주로 인쇄물 형태의 보조자료로 많이 활용되었던 비도서자료가 지금에 와서는 전자산업의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 도서관에도 이러한 비도서자료들이 1970년대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점차 수집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첨단 전자매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다. 특히, '94년 9월 연구도서관 개관 이후 시청각자료실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그 자료들의 활용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또 이용자들은 이런 자료들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비도서자료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도서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준을 연구하여 제시한 것이다.

1. 비도서자료의 운영체제는 비치장소에 따라 정리와 열람방식이 다르게 진행되는 이원적인 소장·운용방법을 택하였다.
2. 비도서자료의 등록은 상당히 중요하고 까다로운 문제이다. 이원적인 운영방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료개발에 대한 의도와 그에 따른 등록이 모든 기초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비도서자료의 각 매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록방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제의 인식 정도만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각 매체별 등록방법의 업무개발에 관한 담당부서의 연구가 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비도서자료의 별치기호는 새롭 마련된 시청각자료실에 대한 별치기호는 다른 별치기호와 같이 영문자 머리글자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는 관계로 현재 사용중인 학습도서관의 "U"와 연구도서관의 "R"문자로 고정하는 방법을 피하고 'Audiovisual'의 머리글자인 'AV'를 채택하였다.
4. 비도서자료의 매체기호는 이미 Ma(지도)와 Mu(음반, 악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모든 비도서자료에 대한 매체기호를 작성 하지 않고 현재 우리 도서관에 소장 중인 자료에 한하여 매체기호를 작성하였다.(본문 p.11-12 참조)
5. 비도서자료의 청구기호는 청구기호는 단행본에서 처럼 복잡하게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의 비도서자료는 청구기호를 가능한 한 간략하게 부여하고 검색은 목록을 통하여 활성화 시키도록 하였다.
  - ① 분류기호 : KDC 3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 ② 도서기호 : 매체별 수입순기호를 선택하였다.
    - ㉠ 판차표시 : 생략하였다.
    - ㉡ 권호, 연도, 복본 표시 : 단행본의 권호, 연도, 복본표시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6. 비도서자료의 목록기술원칙은 USMARC에 맞추어진 운용프로그램이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USMARC 기술규칙과 포맷을 채택하도록 하되, 만약 그 전제가 성립되지 못한다면 단행본 포맷에 따른 입력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7. 비도서자료의 통일표제는 우리 도서관의 미정리 음악작품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 할 때 필요한 통일표제(안)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였다. 음악자료에 적용할 통

일표제는 이용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문통일표제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안)을 정하자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 이 외에도 기존의 방법으로 정리된 자료의 재등록·재정리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모든 자료를 재등록하여 정리체계를 수정하는 것은 그 작업분량이 너무 막대하며 또 분실자료 등의 문제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정대상자료를 최소한으로 축소화 하여 반드시 수정해야만 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분량을 조절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체계로 정리된 자료들(주로 지도와 악보)을 분석해 보면 악보를 제외한 일반자료실에 비치되는 자료들은 기존의 등록과 정리를 그대로 두고 매체기호부여 정도만으로 자료를 수정하고, 시청각자료실에 소장되어야 하는 자료들과 악보는 새롭게 결정되는 방법으로 정리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리라 본다. 다만 이미 등록되어진 책자형 악보는 등록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리체계만을 수정하도록 하고 현재 정리실과 수서실에 계류중인 비책자형 악보들은 분리등록방법으로 재등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부 록】

〈부록 1〉 통일표제로 채택된 전래국악의 아악곡명

구분 4명칭	俗名	雅名		內 容	備 考
		管名	絃名		
祭禮樂	保太平			熙文, 基命, 歸仁, 亭嘉, 輯寧, 隆化, 顯美, 烈光, 貞明, 重光, 大猷, 成(十一曲)	宗廟樂
	定大業			昭武, 篤慶, 濯征, 宣威, 神定, 奮雄, 順應, 寵綏, 靖世, 赫整, 永觀(十二曲)	"
	興安之樂			進饌	"
	熙蓮之樂			於休, 震索, 維吉(三曲)	景慕宮樂
	隆恩之樂			篤慶, 休運, 加柔(三曲)	"
	肅安之樂			赫佑	"
	凝安之樂			黃鍾宮, 大呂宮, 太簇宮, 夾鍾宮, 姑洗宮, 仲呂宮, 蕤賓宮, 林鍾宮, 南呂宮, 無射宮, 應鍾宮, 送神黃鍾宮, 送神夾鍾宮, 送神林鍾宮, (十五宮)	文廟樂
靖東方曲					
維皇曲					
宴禮樂	洛陽春	其壽永昌之曲	夏雲峯		
	步虛子	長春不老之曲		全三章	管樂 步虛子
	步虛詞		黃河清	全七章	絃樂 步虛子
	尾還入 밧도드리	壽延長之曲	賀聖朝	全七章	步虛子の變奏曲
	細還入 잔도드리 또는 웃도드리	頌九如之曲	瑞鶴鳴	全七章	尾還入의變奏曲
	界面加樂還入	千年萬歲			細還入의變奏曲
	兩清還入	千年萬歲		全七章	"
	羽調加樂還入	千年萬歲		全七章	"
	興民樂	昇平萬歲之曲	五雲開瑞朝	全十章中 七章만 傳함	
	慢	景鎬無疆之曲	萬葉繼瑤曲	全十章	興民樂 慢
	本令	太平春之曲			興民樂 令
	解令	瑞日和之曲			本令의變奏曲
	삼현靈山會相	表正萬方之曲		上靈山, 中靈山, 細靈山, 加樂除只, 三絃還入, 念佛還入, 打令, 軍樂(八曲)	管樂 靈山會相 또는대(竹)風流
	三絃還入	咸寧之曲			管樂靈山會相中
	念佛還入 또는 念佛	玉連環之曲			"
	거문고會相	重光之曲	雨淋鈴	上靈山, 中靈山, 細靈山, 加樂除只, 三絃還入, 下絃還入, 念佛還入, 打令, 軍樂(九曲)	줄(絲)風流

구분 명칭	俗名	雅名		內 容	備 考	
		管名	絃名			
宴禮樂	平調會相	柳初新之曲	醉太平之曲	上靈山,中靈山,細靈山,加樂除只,三絃選入,念佛選入,打令,軍樂(八曲)	거문고會相을 四度 아래로 移調한 曲	
	別 曲	呈祥之曲	千年萬歲	尾選入,三絃選入,下絃選入,念佛選入,打令,軍樂,界面加樂除只,兩清選入,羽調加樂選入		
	井 邑	壽齊天		全四章	빗가락 井邑	
	動 動				세가락 井邑	
	사관風流 (자진한잎)	慶豐年			① 羽調頭舉(羽調 자진한잎) ② 羽調頭舉,變調頭舉,界面頭舉,平弄,界樂,編數大葉	
		水龍吟			平弄,界樂,編數大葉	
		艷陽春			① 界面頭舉(界面 자진한잎) ② 界面頭舉,平弄,界樂,編數大葉	
	清聲 자진한잎	堯天舜日之曲	會八仙			
	別羽調打令	金殿樂			打令의 變奏曲	
	길軍樂	折花			軍樂과 同系	
	길念佛	日月恒之曲				
	念佛打令	獻天壽			管樂 念佛	
	鄉唐交奏	豐慶曲				
	吹 打	萬波停息之曲	壽羅南極	全七章	大吹打를 管絃樂曲으로 變奏한 曲	
軍樂	大吹打	武寧之曲	全七章			
歌樂	歌 曲	萬年長數之曲	重仙會	羽調~初數大葉,二數大葉,中學,平學,頭舉,三數大葉,搔篋,羽弄,羽樂,言樂,羽編(十二曲) 界面調~初數大葉,二數大葉,中學,平學,頭舉,三數大葉,搔篋,言弄,平弄,編數大葉,言編,太平歌(十三曲)	羽調에서 界面調로 變調되는曲에半葉,邊界樂,編樂이있고,男唱順序와女唱順序가 따로 있음	
	歌 詞			白鷗詞,竹枝詞(乾坤歌),漁父詞,길軍樂,黃鸝詞,春眠曲,相思別曲,勸酒歌,處士歌,襄陽歌,首陽山歌,梅花打令	十二歌詞	
	時 調			平時調,중허리時調,지름時調,女唱지름時調,엇(窓)時調(現稱 辭說지름時調),엇(窓編)억음時調(現稱 首雜歌),억음(編)時調(現稱 辭說時調 및 휘모리 雜歌)	京制(京판, 또는京調)	
				平時調,辭說時調	嶺制,完制,內浦制	



〈부록 II〉 통일표제로 선택된 국악의 악곡형식명

번호	악곡형식명	번호	악곡형식명
1	歌曲(또는 歌樂이라고 함)	20	時調
2	歌調	21	詩唱
3	管絃樂曲	22	室內樂曲 (樂器編成에 따라 二重奏, 三重奏, 四重奏, 五重奏, 重奏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農樂	23	室內合奏曲
5	短歌	24	雅樂曲
6	獨奏曲	25	練習曲
7	舞曲	26	詠詩
8	民謠	27	立唱
9	梵唄	28	雜歌
10	變奏曲	29	組曲
11	併奏曲	30	重奏曲
12	併唱	31	卽興曲
13	佛歌	32	唱劇 (이는 판소리, 광대소리, 창극, 국극, 가극 등 여러가지로 불리운다.)
14	散調	33	吹打曲
15	序曲	34	誦書
16	聖歌	35	合奏曲(양악에서는 협주곡이라함)
17	小品	36	合唱曲
18	隨想曲	37	協奏曲
19	시나위		

## 〈부록 Ⅲ〉 국악의 가곡명(24곡)

번호	羽調(男唱)	羽調(女唱)	界面調(男唱,女唱)
1	初數大葉(첫치)(5수)	二數大葉(긴것)(6수)	初數大葉(3수)
2	二數大葉(긴것)(2수)	中拳(중허리)(5수)	二數大葉(2수)
3	中拳(중허리)(2수)	平拳(막내리는것)(5수)	中拳(3수)
4	平拳(막내리는것)(2수)	頭(들어내는것)(5수)	平拳(4수)
5	頭拳(들어내는것)(2수)	羽樂(7수)	頭拳(2수)
6	三數大葉(셋째치)계면조(5수)	二數大葉(긴것)(5수)	三數大葉(5수)
7	搔篋(소용이)(5수)	中拳(5수)	搔篋(1수)
8	羽弄(1수)	平拳(6수)	言弄(5수)
9	羽樂(1수)	頭拳(5수)	平弄(4수)
10	言樂(6수)	平弄(5수)	界樂(6수)
11	羽編(2수)	界樂(5수)	編數大葉(10수)
12		編數大葉(7수)	言編(1수)
13		太平歌	太平歌

개개 곡명 다음의 ( )속의 숫자는 각곡에 옛부터 갈라 놓은 시조수를 나타낸다.